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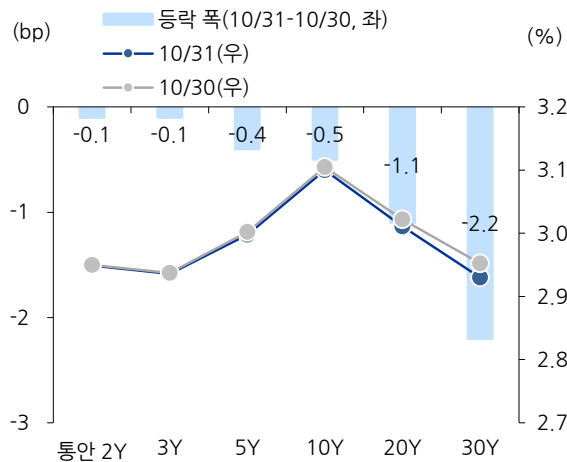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76_jhoonlee@eugenefn.com RA 유재혁_02)368-6177_dbwogur170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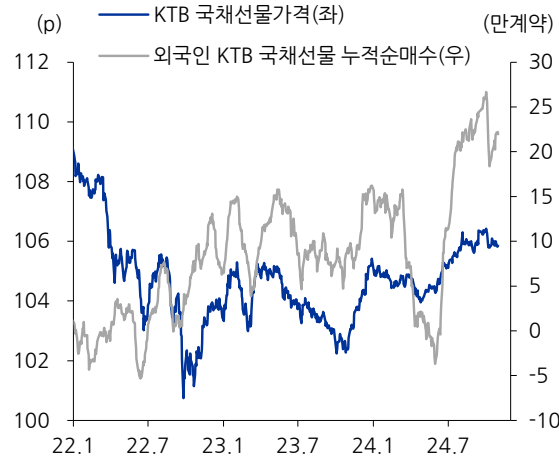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톱)

		10/31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36%	-0.1	4.5	-21.8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100%	-0.5	2.6	-8.3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16.4	16.8	18.3	2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85	1.0	-13.0	43
	10년 국채선물(LKTB)	116.23	6.0	-21.0	73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4.172%	-0.5	9.2	-7.8
	미국채 10년물	4.286%	-1.5	7.2	40.6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11.4	12.4	13.3	-37.1
	독일국채 10년물	2.385%	-0.3	11.8	38.1
	호주국채 10년물	4.506%	4.0	5.5	55.2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 대외금리에 연동되는 흐름 지속
- 전일 미국채 흐름 반영하며 약세 출발. 개장 전 발표된 산업생산이 예상을 밑돌며 둔화되었으나 영향 미미. 외국인, 국채선물 매도하며 금리 상승 견인
- 다만 아시아장 중 미국채 금리 반락하고, 저가매수세가 유입되며 점차 금리 상승폭을 줄여감. 국발게 기대로 초장기물 강세폭이 컸음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강세 마감.
- 예상치에 부합한 미 9월 PCE, 뉴욕 주가 약세 영향 받으며 미국채 금리 하락.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만큼 금리 움직임은 제한됨
- 신규실업청구건수, 지난 5월 이후 최저치. 챌린저 감원 계획도 전월비 큰 폭 감소. 다만 금리 영향은 미미
- 금일 미 ISM 제조업지수 및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



FX & Commodity

(단위: %, \$)

	10/31일	1D	1W	YTD
원/달러	1,379.90	-0.2%	-0.0%	7.1%
달러지수	103.90	-0.2%	-0.1%	2.5%
달러/유로	1.088	0.3%	0.5%	-1.5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12	-0.1%	-0.0%	-0.1%
엔/달러	152.04	-0.9%	0.1%	7.9%
달러/파운드	1.290	-0.5%	-0.6%	1.4%
헤알/달러	5.79	0.4%	2.2%	19.2%
WTI 근월물(\$)	69.26	0.9%	-1.3%	-3.3%
금 현물(\$)	2,743.91	-1.6%	0.3%	33.0%
구리 3개월물(\$)	9,547.00	0.1%	0.4%	11.5 %

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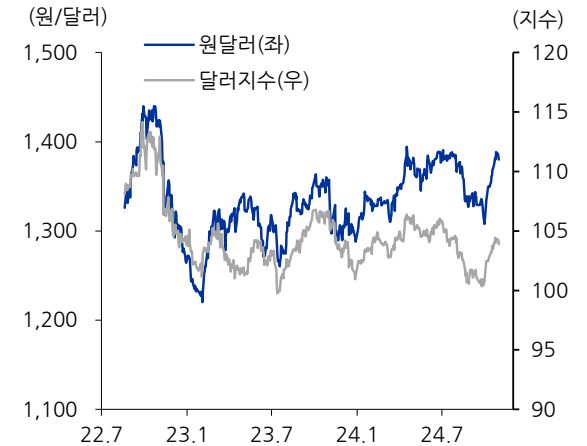
원달러 환율 및 위안달러 환율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 환율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2.50원 하락한 1,379.9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377.00원 마감.
- 간밤 유로존의 예상보다 견고했던 3분기 성장률 속 유로화가 반등하면서 달러 강세 진정. 달러-원도 -1.40원 하락 출발.
- 오전 중 1,377원까지 낙폭을 확대했다가 이후 반등. 그러나 BOJ가 금리 동결과 함께 향후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 발표하면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섰고, 달러-원도 재차 하락 압력 받았음.

원달러 환율 및 달러지수 동향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엔화 강세 속 이탈 연속 하락.
- 미국 9월 PCE 물가지수는 +2.1%(Y) 상승했으나 Core PCE 물가가 +2.7%(Y)로 예상을 소폭 상회했고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끈적한 것으로 나타남.
- 그러나 엔화 강세 속 달러는 하락. 전일 BOJ는 향후 경제/물가 상황이 예상대로 진행될 경우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을 재확인. 우에다 총재도 대외 불확실성이 감소했다고 발언하는 등 예상보다는 덜 완화적이었음.
- 금일 한국 수출 및 미국 ISM 제조업지수, 고용보고서 발표 예정.